

유서에 반영된 부정적 요인과 대안으로서의 웰에이징 요소 연구

박아르마¹, 권온², 안상윤³, 김광환^{3*}

¹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²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³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A study on the negative factors reflected in the will and the factors of well-aging as an alternative

Arma Park¹, On Kwon², Sang-Yoon Ahn³, Kwang-Hwan Kim^{3*}

¹Humanity College, Konyang University, ²WellDying Convergence Laboratory, Konyang University,
³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유서에 반영된 부정적 요인과 대안으로서의 웰에이징 요소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기간 및 대상은 2008년~2020년에 언론에 공개된 유서 36건이다. 조사 결과 13세~34세의 청(소)년기 유서에서는 여러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발견되었다. 35세~49세 사이의 중년기 유서에서는 여성 작성자가 부재하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50세~64세 사이의 장년기 유서에서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두드러졌다. 65세 이상의 노년기 유서 작성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그들의 글은 정신적 측면과 강하게 결부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유서는 역설적으로 온전한 삶을 위한 제안서가 될 수 있다. 유서는 웰에이징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기록이다. 유서의 출처로는 중앙 일간지와 방송 및 지역 언론이다. 본 연구는 유서 작성 인원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유서에 반영된 부정적 요인의 세 가지 측면 곧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을 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유서에 노출된 단어나 표현 등의 빈도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생성하였다.

주제어 : 웰에이징,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유서, 부정적 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negative factors reflected in the will and the factors of well aging as an alternative. The survey data was 36 wills published in the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between 2008 and 2020. As a result, various aspects of negative factors were found in youth wills between the ages of 13 and 34. In middle-aged wills between the ages of 35 and 49, female was not found. The negative factors in the socio-economic aspects were remarkable in the wills of adulthood between the ages of 50 and 64. All the writers of wills over the age of 65 were women, and their writings were strongly linked to the spiritual side. In view of these results, the will explored in this study can paradoxically become a proposal for a complete life. The will is a record with the potential of well aging. Sources of the suicide note included daily newspaper, broadcasting and local media. This study analyse the age and gender and the negative factors reflected in the will, by using the physical aspect, the mental aspect, and the socio-economic aspect as the methodology.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words and expressions exposed in the will were analyzed and keywords were created in word cloud.

Key Words : well-aging, physical aspects, spiritual aspects, socio-economic aspects, will, negative factor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C2A04092504)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kkh@konyang.ac.kr)

Received April 7, 2021

Revised April 30, 2021

Accepted May 20,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우리는 죽은 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는 유서(遺書)를 읽으며 현대인의 죽음의 양상을 이해하고 더불어 그들이 지향하는 삶을 알 수 있다[1]. 여기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유서는 유언(遺言)을 적은 글을 가리킨다. 유언은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기는 행위 혹은 남겨진 말을 뜻한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유언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이며,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유언의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형제와 관련된 재산 상속이 있을 수 있다. 유언 혹은 그것의 문자적 실체로서의 유서는 한 인간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혹은 세계관의 최종적 마무리로서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언론에 공개된 유서를 분석하여 죽음을 실행한 자 혹은 죽음을 시도하거나 죽음을 맞이한 자의 메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¹⁾ 우선 일차적으로 주목하려는 죽음의 형태는 당사자가 직접 선택한 의도적인 죽음, 즉 자살(自殺)이다[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살 사망 진단서 분류기준에 따르면 자살은 “사망자 자신에 의해 초래된 부상, 음독 혹은 질식에 의한 죽음을 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분명하든, 암시적이든)가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자살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정의한다[3].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혹은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남긴 최후의 흔적인 유서를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죽음을 선택한 다양한 이유가 나타나 있는 유서를 살펴보는 것은 각각의 유서에는 그것을 남긴 사람의 다양한 삶의 양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서를 남긴 이들의 삶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웰에이징(well-aging)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 중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파

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두리 외 4인의 연구에 따르면 “웰에이징이란 노화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며 활동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늙어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4]. 인간이 노화라는 이름의 변화를 수용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웰에이징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본 연구가 죽음과 결부된 언어로서의 유서에서 웰에이징의 부정적 요소를 탐구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웰에이징이 추구하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존엄성을 유지한 채 노화에 이르는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자살이라는 부정적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삶에서 이탈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흔적인 유서이다. 죽음, 특히 자살이라는 형태의 죽음은 웰에이징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서에 기록된 불안과 우울을 비롯한 죽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서에 직간접적으로 기록된 불안, 슬픔, 우울, 절망, 죽음(자살) 등 부정적인 정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 웰에이징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유서에 반영된 삶의 태도 중 부정적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앞서 제시한 웰에이징의 요소를 제안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조사 대상으로는 2000년대 언론에 공개된 다수의 유서 가운데 사회적인 관심사나 화두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례를 선택하였다. 죽음의 선택에 있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가 나타나 있는 유서이지만 그 기록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경우도 있다. 누군가의 유서에 반영된 부정적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구체화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기대 속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웰에이징의 요소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36건의 유서를 조사 편의성을 고려하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유서 작성자의 연령대로 구분하여 표기하면 Table 1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조사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유서는 모두 언론에 공개된 것들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서의 사망 이유는 언론에 보도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혹은 본 연구의 서술 혹은 표현과 관련하여 불편함 감정이나 마음이 발생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론에 공개된 유서를 데이터로 활용한 본 연구는 학술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양지하시고, 유서 작성자와 가족, 관계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해량 바랍니다.

Table 1. Age classification for writing wills (n=36)

Categories	n	%
Age group		
Teens(13-19 years old)	3	8.3
Twenties(20-29 years old)	7	19.4
Thirties(30-39 years old)	5	13.8
Forties(40-49 years old)	8	22.2
Fifties(50-59 years old)	8	22.2
Sixties, Elderly(65 years old or older)	5	13.8
Total	36	100.0

2.2 조사방법

본 연구는 건양대학교 청년인턴 학생들이 2000년대 이후 언론에서 수집한 유서 36건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공개된 유서 36건에는 각각의 부정적 정황 혹은 메시지가 담겨있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조사방법은 유서의 소통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능한 많은 수의 구성원들에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서를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까닭에 유서의 출처로서의 언론을 선택하는 기준은 기사의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유서 36건의 출처 혹은 언론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는 상기한 총 36건의 유서를 매우 다양한 출처 혹은 언론에서 획득할 수 있었다. 유서의 출처로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중앙지나 KBS, SBS, MBN, 연합뉴스 등 중앙방송도 있었으나 뉴스락, 광주 in, 뉴스 프리존, 폴리뉴스 등 지역 언론들도 적지 않았다.

한 인간의 마지막 심경을 집약하여 담은 기록인 유서를 다루는 데 언론사의 규모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언론사라도 유서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유서 작성의 배경을 온전히 밝힐 수 있다면 조사의 목적에 부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일한 유서를 기사화하는 다수의 언론이 있다고 할 때, 언론사의 규모나 지역이 기준이 아니라 기사의 정확성을 최우선에 두고 개방된 시각에서 출처를 선택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언론에 공개된 유서들 중 36건을 선택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의 핵심은 유서의 영향력이나 소통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다양한 유서 유형 중 본 연구가 선택한 유서들에는 대개 사회적인 관심사나 화두 혹은 공감대가 나타나 있었다.

Table 2. Source of a suicide note

Name	Age	Sources
Hwang ○○	15	KBS, 2017.04.13.
Unknown	16	Chosunilbo, 2012.04.30.
Choi ○○	17	Newsis, 2013.03.12.
Seo ○○	22	Financial News, 2020.05.19.
Cheon ○○	22	New1, 2014.03.13.
Choi ○○	23	Hankookilbo, 2015.05.13.
Ko ○○	25	Mbcsportsplus, 2020.08.03.
Kim ○○	27	Shinailbo, 2017.12.19.
Oh ○○	28	Financial News, 2014.11.01.
Jang ○○	29	YeonggwangNewspaper, 2017.12.26.
Cho ○○	31	Yonhapnews, 2020.09.09.
Kim ○○	32	Newslock, 2019.12.20.
Choi ○○	35	Voice of the people, 2012.12.21.
AHn ○○	36	Newsen, 2008.11.28.
Park ○○	37	Moneytoday, 2018.12.05.
Lee ○○	40	Kyunghyangshinmun, 2014.01.02.
Jin ○○	40	Moneytoday, 2020.07.08.
Jung ○○	42	Moneytoday, 2018.07.13.
Unknown	44	Yonhapnews, 2014.03.26.
Lim ○○	45	Hankookilbo, 2015.07.19.
Kim ○○	46	Ohmynews, 2020.11.16.
bonze A	Forties	Gwangjuin. 2010.06.02.
Mr. A	Forties	MBN, 2020.07.14.
Lee ○○	53	Todaynews, 2017.09.08.
Cho ○○	54	Monthlychosun, 2018.03.09.
Mr. A	54	Seoulfinance, 2017.01.06.
Unknown	55	Sisaplusnews, 2018.08.20.
Choi ○○	57	Newsis, 2018.12.10.
Choi ○○	59	Hankyungmedia, 2020.05.18.
Kim ○○	Fifties	SBS, 2020.10.21.
Lee ○○	Fifties	Newsfreezone, 2020.11.30.
Lee ○○	60	Noctutnews, 2018.12.08.
Noh ○○	62	Ohmynews, 2009.05.23.
Park ○○	64	ilyosisa, 2020.07.10.
Na ○○	78	Chosunilbo, 2017.12.27.
Hwang ○○	88	Polinews, 2014.03.11.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36건의 유서를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방법은 유서 작성 인원의 '연령' 구획에 의한 분석이다. 둘째 방법은 유서 작성 인원의 '성별' 구획에 의한 분석이다. 셋째 방법은 유서에 반영된 부정적 요소의 세 가지 '영역' 혹은 '측면'에 의한 분석이다[5].

본 연구는 유서에 노출된 단어나 표현 등의 빈도 분석을 방법론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유서의 주요 내용을 추출한 뒤 그것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고 최종적으로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를 생성하는 시각화 단계를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서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유서는 총 36건이다. 유서 작성자 36명은 성별 기준에 따라 남성 28명과 여성 8명으로 나누었다. 유서는 작성자의 연령별로 청(소)년기(13세~34세) 12명, 중년기(35세~49세) 11명, 장년기(50세~64세) 11명, 노년기(65세 이상) 2명 등으로 구분된다. 36건의 유서는 각각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의 부정적 요인과 관련성이 있다. 유서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n=36)

Categories		Male	Female
Youth (13~34years old)	physical	2	0
	mental	2	0
	social, economical	3	5
Middle-age (35~49 years old)	physical	0	0
	mental	3	0
	social, economical	8	0
Mature (50~64 years old)	physical	3	0
	mental	1	1
	social, economical	6	0
Elderly (65 years old or older)	physical	0	0
	mental	0	2
	social, economical	0	0

3.2 남성 유서와 여성 유서의 대조적 특성

총 36건의 유서를 작성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면 남성 유서는 28건, 여성 유서 8건이다. 2000년대 이후 언론에 공개된 유서 중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경우 36건을 선정할 결과 남성 작성자의 유서가 28건이고 여성 작성자의 유서는 8건이다. 유서 작성자 중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서를 남길만한 상황에 자주 노출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 곧 자살의 위협에 쉽게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 작성자가 남긴 유서에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신체적 측면이나 정신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 역시 상당 수준으로 드러났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 빈도가 제한적인 여성 작성자의 유서는 연령대에 따라서 부정적 요소의 쏠림 현상

이 두드러졌다. 곧 청년기 여성 작성자의 유서에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문제점이 강조되어 있다. 반면 장년기와 노년기 여성 작성자의 유서는 정신적 측면으로 경도되었다.

3.3 10대부터 60대 이상 유서의 연령별 특성

3.3.1 10대의 유서

우리나라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한 10대는 총 556명으로 집계되었다.[6] 조사한 10대의 유서 3건 중 2건은 신체적 측면과 관련되었고 1건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연결되었다. 신체적 측면과 관련된 2건의 유서는 학교 폭력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학교 폭력은 청소년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사회·경제적 측면과 연결된 1건의 유서는 집단 따돌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집단 따돌림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이 웰에이징의 가치를 충분히 공유한 사회가 되려면 출발선에 서 있는 10대 학생들의 환경과 삶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안전과 환경,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나타난 제 문제를 극복하고, 웰에이징이 가능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 이상의 사안은 다음 Fig 1, Table 4와 같다.



Fig. 1. Teenage word cloud

Table 4. Teenage suicide note

Name	Date of death	Person information	Reasons for death
unknown		middle school student	group bullying
Hwang ○○	2002.04	middle school student	school violence
Choi ○○	2013.03.11	high school student	school violence

3.3.2 20대의 유서

20대의 유서 7건 중 5건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2건은 정신적 측면과 관련이 있었다. 사회·경제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5건의 유서는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승부조작 연루, 성상납, 직속 상관의 성추행과 성관계 요구, 스트레스와 ‘악플’(성희롱)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스트레스는 자살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다루어진다.[7],[8]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충기를 난사한 후 자살한 Table 5, 최○○의 유서에는 ‘다 죽이고 자살하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있다. 그는 또한 과거 군에서 복무할 때 GOP에서 수류탄과 총으로 죽일 수 있을 만큼 죽이고 자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는 심경을 밝힌 적이 있다. 예비군 최○○의 심리는 군복무 시절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3] 위의 부정적 요인은 경제문제, 인간관계, 의사소통 등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정신적 측면과 관련된 2건의 유서는 우울증, 낮은 자존감과 외적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위의 부정적 정황은 자기수용감, 인생관, 웰다잉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20대 여성들의 유서에 드러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위의 부정적 요인들을 개선할 때, 대한민국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자기수용감과 인생관이 바로 서며, 경제적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웰에이징의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사안은 다음 Fig 2, Table 5와 같다.



Fig. 2. Twenties word cloud

Table 5. Twenties suicide note

Name	Date of death	Person information	Reasons for death
Seo ○○	2020.03.17	worker	workplace harassment
Kim ○○	2017.12.18	idol star	depression
Cheon ○○		pro-gamer	match fixing
Ko ○○	2020.07.31	volleyball player	stress, malicious comments
Chang ○○	2009.03.07	actor	sexual favours
Choi ○○	2015.05.13	reserve forces	low self-esteem, external complex
Oh ○○	2013.10.16	army captain	sexual harassment

3.3.3 30대의 유서

30대의 유서 5건은 모두 사회·경제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들 5건의 유서는 직장 내 ‘갑질’, 불법촬영 동영상 게시, 사측의 노조 탄압, 사업실패와 빚 독촉, 강제집행과 노숙 등에서 비롯되었다. 위의 부정적 요인은 인간관계, 의사소통, 경제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30대의 유서에서 찾을 수 있는 눈에 띄는 경향성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현대 대한민국 30대 남성의 삶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움에 놓인 것은 분명하다. 독특한 인간관계, 원활한 의사소통,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출 때 웰에이징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사안은 다음 Fig 3, Table 6과 같다.



Fig. 3. Thirties word cloud

Table 6. Thirties suicide note

Name	Date of death	Person information	Reasons for death
Kim ○○	2019.12.09	office worker	Workplace harassment
Jo ○○	2020.09.09	Company representative	exposure to privacy
Choi ○○	2012.12.21	deputy head of department of a conglomerate	suppression of the labor union
Ahn ○○	2008.09	Actor	Business failure
Park ○○	2018.12.04	displaced people	economic difficulties

3.3.4 40대의 유서

40대의 유서 8건 중 5건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관련이 있고 3건은 정신적 측면과 연결되었다. 사회·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5건의 유서는 성추행과 강제 촬영, 정부를 향한 항의, BJ 스토킹 혐의에 따른 실형 선고, 검찰조사에 대한 압박감, 사업장 철수 가능성과 심리적 부담감 등에서 비롯되었다. 위의 부정적 요인은 인간관계, 의사소통,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경제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정신적 측면과 연결된 3건의 유서는 딸 성추행 혐의에 대한 억울함 호소, 대통령 사퇴 요구,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 등에서 비롯되었다. 위의 부정적 정황은 자기수용감, 자립성, 인생관,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인간관계, 의사소통, 자기수용감, 자립성, 인생관,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등을 개선한다면 웰에이징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상의 사안은 다음 Fig 4, Table 7과 같다.



Fig. 4. Forties word cloud

Table 7. Forties suicide note

Name	Date of death	Person information	Reasons for death
unknown	2014.03.22	disabled person	possibility of a prison sentence
jung ○○	2018.07.09	studio administrator	sexual harassment, claim of innocence
Lee ○○	2014.01.01	unknown(40)	political demands
Lim ○○	2015.07.18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spection by national agency
bonze A	2010.05.31	buddhist monk	opposition to national policy
Jin ○○	2020.07.08	famous BJ(40)	stalking, complain of an injustice
Mr. A	2020.07.07	police officer	investigation of inspection
Kim ○○	2020.11.15	non-regular worker	job cut

3.3.5 50대의 유서

50대의 유서 8건 중 3건은 신체적 측면과 관련되었고 2건은 정신적 측면과 연결되었으며, 3건은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측면과 관련된 3건의 유서는 건강악화와 직장출근 압박, 폭언과 폭행 등에서 비롯되었다. 위의 부정적 정황은 신체활동 및 운동, 안전과 환경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정신적 측면과 연결된 2건의 유서는 '미투' 사건, 가정 문제 해결 불가능성 등에서 비롯되었다. 위의 부정적 요인은 자기수용감, 자립성, 웰다잉 등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우이다. 사회·경제적 측면과 이어진 3건의 유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 반대 등에서 시작되었다. 위의 부정적 정황은 경제문제, 인간관계, 의사소통 등에서 문제가 나타난 경우이다. 이에 대응하여 신체활동, 안전과 환경, 자기수용감, 자립성, 웰다잉, 경제력, 인간관계, 의사소통 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면 우리 사회에 웰에이징의 요소가 확산되고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사안은 다음 Fig 5, Table 8과 같다.



Fig 5. Fifties word cloud

Table 8. Fifties suicide note

Name	Date of death	Person information	Reasons for death
Jo ○○	2020.03.09	Actor	sexual harassment
Lee ○○	2017.09.05	Mailman	work stress
unknown	2018.08.20	police officer	violence at work
Kim ○○	2020.10.20	Courier	violence at work
Choi ○○	2020.05.10	apartment security guard	violence at work
Lee ○○	2016.09.02	the hotel president's wife	family trouble
Mr. A	2017.01.07	union representative	investigation of inspection
Choi ○○	2018.12.10	taxi driver	opposition to national policy

3.3.6 60대 이상 연령층의 유서

60대 이상의 유서 5건 중 3건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2건은 정신적 측면과 관련이 있었다. 사회·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3건의 유서는 비서 성추행 혐의에 의한 고소 사건,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지시 혐의에 의한 검찰 수사, 주변 인물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9] 위의 부정적 요인은 인간관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정신적 측면과 연결된 2건의 유서는 자살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나는 암 말기 진단 후 자녀 몰래 작성하였고 다른 하나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0]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의 성격을 갖는 2건의 유서에는 공통적으로 인생관이 들어있으며 특히 전자에는 행복의 가치가 담겨 있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웰에이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

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의 사안은 다음 Fig 6,7,8 Table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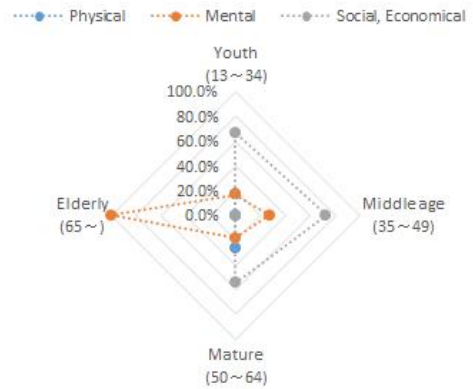


Fig. 6. General characteristics



Fig. 7. Sixties word cloud



Fig. 8. Elderly(65 years old or older) word cloud

Table 9. Elderly(65 years old or older) suicide note

Name	Date of death	Person information	Reasons for death
Park ○○	2020.07.09	mayor of Seoul	sexual harassment
Lee ○○	2018.12.07	commander(60세)	inspection by the prosecution
Noh ○○	2009.05.23	former president	tax investigation
Na ○○	2017.12.15	ovarian cancer	will
Hwang ○○	2014.02.17	movie star	will

4. 고찰

서론에서 밝힌 바 있듯이 죽음, 특히 자살이라는 형태의 죽음은 웰에이징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유서에서 노출되는 불안, 슬픔, 우울, 절망, 죽음(자살) 등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웰에이징의 가치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서에 반영된 부정적 요인과 그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웰에이징의 요소를 탐구하였다.

작성자 연령을 기준으로 13세~18세 사이의 청소년기와 19세~34세 사이의 청년기를 포함한 13세~34세 사이의 청(소)년기(Youth) 유서는 총 12건이었다. 이 시기의 유서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두드러진 사안이 8건으로 기록되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신체적 측면의 문제와 정신적 측면의 문제가 노출된 유서들도 각각 2건을 기록하여 청(소)년기의 유서는 다양한 측면의 부정적 요인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이 시기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전 구성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 요인과 맞서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측면의 높은 빈도수를 고려할 때 이 시기 젊은이들이 아직 경제적인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5인이 남긴 유서는 모두 사회·경제적 측면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성자 연령을 기준으로 35세~49세 사이의 중년기(middle age) 유서는 총 11건이었다. 이 시기의 유서 역시 사회·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두드러진 경우가 8건을 기록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정신적 측면의 문제가 노출된 유서는 3건이었고, 특히하게도 11건의 유서 중 여성 작성자의 유서는 찾을 수 없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사

회 중년기 남성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원인 역시 사회·경제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유서들에서 신체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적극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현상은 중년기 남성들의 신체가 아직 건강하고 동시에 가장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이 작동함을 의미한다.

작성자 연령을 기준으로 50세~64세 사이의 장년기(Mature) 유서는 총 11건이었다. 이 시기 유서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두드러진 경우가 6건을 기록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신체적 측면의 문제가 드러난 유서는 3건이고 정신적 측면의 문제가 노출된 유서는 2건이어서 장년기의 유서 역시 청(소)년기의 그것과 같이 다양한 측면의 부정적 정황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도 유서 작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꼽을 수 있었다. 청(소)년기, 중년기, 장년기 유서를 아우르는 가장 광범위한 유서 작성 원인이 사회·경제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기억해야겠다.

작성자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년기(Elderly) 유서는 총 2건이었다. 유서 작성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그들의 유서는 공통적으로 정신적 측면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노년기 여성의 글은 스스로의 의도적인 죽음을 지향하는 유서라기보다 자식들을 향한 절실한 유언의 문자화된 표현에 가깝다. 본 연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길고, 그 결과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아버지로서의 남성에 비해 더욱 긴 시간 동안 자녀 곁에 머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11],[12]

유서에 반영된 웰에이징의 요소를 추출하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예비하는 언어 행위로서의 유서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익숙하였다.[13] 남성이 남긴 유서에는 사회·경제적 측면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도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남긴 유서는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가 제한적이었다. 여성의 유서에 있어서 유의미한 사실 중 하나는 청(소)년기 유서와 다른 연령층 유서의 성격 차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청(소)년기 여성의 유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 경도되어 있는 반면 장년기와 노년기 여성의 유서는 정신적 측면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14],[15]

우리는 유서에 담긴 자살 혹은 죽음의 메시지를 읽으며 역설적으로 웰에이징의 본질과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삶의 과정으로서의 웰에이징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측면, 곧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이 균형을 이루며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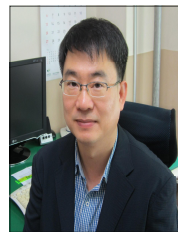
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자살 혹은 죽음을 언어로서 형상화하는 유서에는 상기한 삶의 세 가지 측면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며 복원될 때, 우리는 웰에이징의 가치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서라는 이름의 결핍의 기록은 역설적으로 온전한 삶을 위한 제안서가 될 수 있다. 유서는 웰에이징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기록이다.

REFERENCES

- [1] Konyang Welldying Convergence Laboratory, (2018). *Understanding Well-Dying Actual*, DeaJeon : Soomoonssa.
- [2] Emile Durkheim, (2008). *Suicide : A Study in Sociology*, PaJu : Chungabooks
- [3] S. H. Lim. (2014). Soldiers' Suicidal Psychology That Appeared in Suicide Note. *The Korean Academy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8(3). 182-188. UCI : G704-SER000002272.2014.8.3.004
- [4] D. R. Kim, K. H. Kang, A. Park, J. H. Lee & K. H. Kim. (2021). An Integrative Review of Well-aging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3), 190-198.
- [5] S. H. Yoon & C. H. Lee. (2016). Predictors of Police Suicide Ideation: Verification of Stress and Negative Life Ev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12(3). 63-86. UCI : G704-SER000010388.2016.12.3.005
- [6] J. R. Kim & H. J. Kim. (2021). Development of Art Therapy Programs for Youth at Risk of Suicid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1), 543-552. DOI : 10.5762/KAIS.2021.22.1.543
- [7] E. K. Byun, M. Y. Kim & E. H. Kim. (2020).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08), 315-324. DOI : 10.5762/KAIS.2020.21.8.315
- [8] S. Y. Yim. (2020). An Analysis of the Factors and Patterns Related to Stress Perception of Students from Different Types of High Schoo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05), 598-606. DOI : 10.5762/KAIS.2020.21.5.598
- [9] E. J. Oh & K. O. Chang. (2021).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Avoidance Coping Style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in the Elderly over the Age 65 in G C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2), 92-103. DOI : 10.5762/KAIS.2021.22.2.92
- [10] Y. S. Rhee, S. Y. Kim & J. H. Park. (2020). Financial Hardship Factors affecting the Cancer Patient's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0), 299-307. DOI : 10.5762/KAIS.2020.21.10.299
- [11] J. R. Lim & J. S. Kim. (202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ecovery Process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Suicide Crisi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08), 304-314. DOI : 10.5762/KAIS.2020.21.8.304
- [12] Y. S. Seoim & C. Y. Jeong. (2020). Influences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of Middle-aged Woman: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Meaning of Life,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01), 641-648. DOI : 10.5762/KAIS.2020.21.1.641
- [13] T. Y. Lee, J. H. Shin, M. S. Yu, & K. H. Kim. (2011). A study on suicidal behavior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6). 2636-2643. UCI : G704-001653.2011.12.6.013
- [14] S. Y. Bang & Y. S. Do. (2020).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06). 161-169. DOI : 10.5762/KAIS.2020.21.6.161
- [15] H. Y. Kim. (2020). Factors Affecting Aging Anxiety in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06). 563-573. DOI : 10.5762/KAIS.2020.21.6.563

박 아르마(Arma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조교수
- 관심분야 : 문학비평, 번역학, 웰다잉, 웰에이징
- E-Mail : parkarma@konyang.ac.kr

권 온(On Kwon)

[정회원]



- 2012년 2월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웰다잉, 웰에이징, 융합 연구, 문학
- E-Mail : 02kwon@hanmail.net

안 상 윤(Sang-Yoon Ahn)

[장학원]



- 1999년 8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 박사
- 1987년 4월 ~ 2000년 12월 : 충남대학교 기획연구실
- 2002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병원조직인사관리, 의료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웰에이징

· E-Mail : greahn@konyang.ac.kr

김 광 환(Kwang-Hwan Kim)

[중산학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노인, 삶의 질, 치매, 웰에이징
- E-Mail : kkh@konyang.ac.kr